

「鋏」 語 에 대 한 小 考

— 特히 濟州島 方言과 關聯해서 —

金 洪 植

內 容

- I 序 言
- II 「割子蓋」의 解讀
- III 「마스개」의 成語 經緯와 變遷
- IV 比較的 考察
- V 結 語

I 序 言

國語의 通時的 考察, 即 國語史의 研究는 그 限域가 原始國語에서 부터 現代語까지라고 하겠다. 國語의 史의 研究에는 무엇보다도 文獻資料가 重要한 것인데, 우리는 中間期 文獻資料의 缺如로 大端히 어려운 處地에 있다.

우리말의 狀態를 比較的 分明히 알 수 있는 것은 訓民正音 以後라 할 것이니, 500年 以上을 더 遡及하여 올라갈 수가 없다. 그 以前, 即 訓民正音 以前 時代의 우리말에 對해서는 極히 斷片的이며 不正確하고, 그나마 僅少한 資料로부터 그 한 部分을 窺視하는 데 不適當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國語의 歷史의 研究는, 李朝 初期까지는 遡及하여 올라갈 수가 있으나 그 以前 時代에 對해서는 踏步를 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方言은 우선 文獻資料의 缺乏을 補充하여주는 重要한 資料로서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 즉 訓民正音 以前의 우리 古語를 밝히려면 方言學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다. 方言學은 近來 France의 言語學者 J. Gilliéron이 言語地理學을 創始한 以來 方言學에 새로운 材料와 方法을 導入하게 되었다. 方言의 共時的 研究도 必要하나 方言의 通時的 研究, 即 方言을 하나의 歷史의 資料로 取扱하여 現在 그 자취를 감추고 埋沒되어버린 語彙의 諸層位를 그 語彙의 現在의 露頭를 調査하여서 古語의 層位를 再建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즉 方言에는 그 地方에 지내 내려온 歷史의 자취가 그대로 投影되어 있어 오늘날 文獻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古語가 도리어 方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古語는 方言에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言語의 古形이 原形

그대로 保存되고 있는 境遇는 極히 稀少한 일이며, 이와 같이 言語의 옛 形態가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데는 古文獻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文獻의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이룰때면 李朝 以前 時代의 말에 對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일까? 그러나 文獻의 傍證이 없이도 方言中에 言語의 古形이 있음을 發見할 수가 있다. 卽 語形의 構造上으로 보아 方言語形과 文獻語形을 서로 比較하여 볼 때, 現在 어느 方言에 남겨져 있는 語形이 500年前 文獻語보다 오히려 더 오랜 形態임을 밝혀 낼 수도 있는 것이다.

Gilliéron의 方言周圍說에依하면 言語는 政治, 文化의 中心地에서 가장 새로운 言語가 存在하며, 여기서 생긴 새로운 言語는 周圍에 퍼져 먼 地方으로 점점 傳播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古語는 이 中心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中心地서부터 같은 距離에 있는 地點에는 大概 같은 形態의 語形을 發見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도 高麗, 李朝 千年 동안 政治, 文化의 中心地요 또 地理的으로 中央이 되는 京畿地方의 言語가 가장 새로운 말을 가졌을 것이고, 다음에 忠淸道, 江原道, 黃海道의 順으로 次次 中央部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갈수록 오래된 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池面에 돌을 던지면 돌의 落下 地點을 中心으로하여 周圍에 그 波紋이 圓을 그리며 次次 멀리 퍼져 나가는 것과 恰似하다 하겠으니, 中央部에서 新語가 자주 생겨나서 地方으로 傳播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言語의 傳播에는 여러가지 作用하는 要因이 있으니, 地理的으로 볼때 險峻한 山岳이나 큰 江이 있는 곳에선 새로운 言語의 傳播가 잘 안되어 古語가 그대로 남아 있고, 같은 距離에서도 交通이 便利한 곳은 言語의 傳播가 容易하다. 그러나 이러한 言語의 障壁은 반드시 地理的 條件에만 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社會的, 人種的 原因에 依해서도 言語障壁은 形成된다.

濟州島는 地理的으로 中央部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뿐더러, 本土와는 바다를 隔한 絕海의 孤島라는 地理的 條件은 여기에 두터운 言語障壁을 形成케 하였으니, 言語의 交流는 自然 막히게 되고, 따라서 獨自的 發展을 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言語發展은 本土의 그 것보다는 훨씬 後進的이어서 音韻, 語彙, 形態等의 諸 方言現象이 古代的 現象을 보다 더 많이 維持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며, 더구나 文獻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語彙의 古形態도 殘存하고 있는 듯하며, 國語 原形 再構上 大端히 重要視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이와 같은 言語障壁은 날로 崩壞되어 가고 있는 實態이니, 오늘 날 發達된 交通 手段과 아울러, 本土와의 諸般 交流가 頻繁하여짐에 따라 改新波의 流入은 勿論, 現代 美스킴의 發達 普及과, 解放後 學校教育의 發達은 自然 標準語를 強要당하게 되니, 本來의 濟州島方言은 急速度로 消滅하여 가는 實情에 있다.

이제 「가위」(欵)를 뜻하는 우리말을 볼 때 우리는 文獻을 따라 李朝 初期 形態인 「ㄱ새」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가 있으나, 그 以前時代에 이르면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출 수 밖에

없다. 高麗時代 宋나라의 孫穆이 12世紀 初頭に 編纂한 雞林類事에 있는 「缺」語에 對한 最古 記錄인 「割子蓋」를 解讀함에 있어서도, 李朝初期의 文獻資料보다도 오히려 오늘날 方言資料에 依해서 많은 解決點을 暗示받고 있음이 事實이라 하겠다. 卽 中央部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邊界의 方言 속에 言語의 古層位가 殘存하여 있을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改新波에 依해 埋沒되어가는 言語의 古層位의 破片이나마 과해쳐서, 그 露頭를 發見해내고 그 關係를 밝혀 나간다면, 文獻語 以前의 古形態를 再構하는 데 方言이 크게 寄與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이다.

「缺」語에 對한 研究는 일찍기 日人學者 河野六郎氏의 朝鮮方言學試攷의 「缺」語考와, 南廣祐氏의 「マ시개研究」를 비롯하여, 그 外 여러 先輩學者의 많은 研究가 있어 온 터라, 本稿에서는 特別한 새로운 發見이라기 보다는, 雞林類事의 「割子蓋」의 解讀 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그 成語經緯 및 史的인 變遷과 語源等에 對해서 特히 濟州島方言(以下 本島方言)과 關聯해서, 몇 가지 管見을 들어 보고자 하거니와, 한갓 牽強附會의 拙見이 되지 않을까 疑懼를 禁치 못하는 바이다.

本稿의 古語 資料는 南廣祐氏의 「古語辭典」 및 여러 論文에서 轉用한 것인데, 이들은 아래의 文獻에서 採取한 것이매 便宜上 그 略號를 定하여 둔다.

冊 名	刊行年代	<略號>
龍飛御天歌	1446	<龍歌>
釋譜詳節	1447	<釋譜>
月印釋譜	1459	<月釋>
능嚴經諺解	1462	<능諺>
永嘉集諺解	1464	<永嘉>
金剛經諺解	1464	<金剛>
杜詩諺解初刊	1481	<杜諺. 初>
樂學軌範	1493	<樂軌>
時用鄉樂譜		<時用鄉>
朴通史諺解初刊	1517	<朴通諺. 初>
訓蒙字會	1527	<字會>
杜詩諺解重刊	1632	<杜諺. 重>
譯語類解	1670	<譯語>
蒙山和尚法語略錄		<蒙山>

Ⅱ 「割子蓋」의 解讀

「缺」語에 對해서 文獻上에 나타난 資料를 여기 들어 본다.

剪刀曰 割子蓋 <雞林類事>

ㄹ애(刀) <杜諺. 初. 10;33>

ㅁ애(剪子) <朴通事. 上. 39>

(剪) <字會. 中. 14>

ㅁ애(剪子) <杜諺. 重. 10. 33 朴通事. 上. 36>

가위(剪子) <譯語. 下. 15 方言輯釋>

以上 文献資料에 依하여 高麗時代 以後의 오늘날까지의 그 變遷 過程을 적어 보면 割子蓋> ㄹ애(ㅁ애)>ㅁ애>가위>가위와 같이 된다.

다음으로 이 말의 方言에 分布되는 形態를 河野六郎氏의 「朝鮮方言學試攷」에서 借用하여 들어 본다.

1. [ka-wi] 京畿道, 黃海道, 忠清南北道.
2. [ka-we] 黃海道, 平南中和, 平壤, 忠北鎮川.
3. [ka-weɛ] 慶尙北道, 江原道江陵.
4. [ka-e] 忠北清州, 平北江界.
5. [ka-ɛ] 平南德川, 慶南蔚山.
6. [ka-u] 京畿楊平, 廣川, 長湍, 開城, 黃海道延安, 平南中和, 平壤, 忠北清州.
7. [ka-o] 忠南公州, 論山, 全南靈光.
8. [kaŋ-we] 平南漢川.
9. [kaŋ-e] 平南永柔.
10. [kaŋ-ɛ] 平安北道.
11. [kaŋ-a] 平安北道.
12. [kaŋ-u] 平安南道.
13. [ka-sɛ] 京畿道, 忠清南北道, 江原道, 全羅南北道, 慶尙南北道, 咸鏡南北道.
14. [ka-si-ge] 慶尙南北道, 全羅南道南部, 全北南原, 忠北永同, 江原道蔚珍, 平海.
15. [ka-sɛ-gi] 慶南金海.
16. [ka-si] 慶南蔚山.
17. [kω-sɛ] 濟州島.

<朝鮮方言學試攷 p. 22>

以上 文献資料에 依한 語形의 變遷 過程과, 또 우리말 方言에 나타나는 諸形態를 들어 보았다. 여기서 「가위」의 語辭에 對해서, 文献資料에 依한 變遷과, 方言과를 比較 考察하여 볼때, 여러가지 事實을 밝혀 낼 수가 있다. 河野六郎氏는 以上 列擧한 17種의 方言形 中에서

첫째로 14의 [ka-si-ge]인데 이 語形의 存在에 依해서 上述 雞林類事의 割子蓋가 誤

記가 아니라 古形을 잘 記述하였음을 알 수 있음과 同時에 慶尙道에 古形이 아직도 殘存하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割子蓋는 kasige와 類似한 三音節語이었음이 分明하게 되었다.¹⁾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河野六郎氏는 [ka-si-ge]가 그대로 割子蓋에 相當하는 것은 아니며, 高麗時代의 古形을 再建하기에 앞서, 이 말을 構成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音韻에 對해서, 더 研究하여 볼 必要性을 強調하고, 雞林類事의 「割子蓋」 解明에 네가지의 主題로 갈라 詳論하고, 割子蓋를 [ka-si-gai]로 解讀하였다.²⁾

南廣祐氏는 「割子蓋」를 「마시개」로 解讀하고 「마시개」는 「ㅈ+이+개」로 分析하였거나와, 「ㅈ」은 「切, 斷, 絶」의 뜻을 가진 「ㅈ다」動詞의 語幹이요, 「이」는 介入母音, 「개」는 名詞化 接尾辭라고 하였으며, 李朝初 文獻語 「마새」에 對해서는 「ㅈ+애」로 分析하고 「ㅈ」語幹에 名詞化 接尾辭 「애」가 合하여 이루어진 語形으로 보았다.³⁾

또 方鍾鉉氏는 割子蓋를 「갈지개」⁴⁾로 解讀하였으며, 李基文氏는

雞林類事의 ‘剪刀曰割子蓋’의 讀法에는 문제들이 있으나 15世紀의 ‘ㅈ애’(杜詩註解 10.33)와의 對應을 고려할 때, ‘ㅈ개’[kazgai]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15세기 문헌(月印釋譜 10.13)에서 확인되는 ‘ㅈ-’(剪)이라는 動詞 語幹에 接尾辭 ‘-개’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다.⁵⁾

라고 하였다.

「歛」語에 關한 最古 文獻의 記錄인 雞林類事의 「割子蓋」의 解讀에 對하여는, 以上 學論한 바와 같이, 여러 學者들의 解讀이 있어온 터이나, 이 記錄을 바르게 解讀하려면, 漢字音, 古語, 方言의 세가지 研究가 필반됨 되어야 할 것이다. 卽 첫째로는 漢字音에 對한 体系的인 研究와, 둘째는 文獻을 調査, 整理하여 古語를 찾아 내고, 세째는 埋沒되어가는 古語의 殘滓를 발굴 해 내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세 가지 方面의 調査研究가 綜合되는 가운데에, 歸納的인 結論을 얻게 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다만 「割子蓋」의 解讀問題에 있어서 本島方言과 關聯해서 若干의 拙見을 들어 봄에 不遜함을 말하여 둔다.

雞林類事의 「割子蓋」를 여기서 「마스개」로 解讀을 試圖하여 보고자 한다.

「割」字의 現代音은 「갈」이나, 集韻에 「居曷切」로 되어 있으며 그 初聲은 「ㄱ」일 것이나, 中聲을 「·」로 읽는 데는 問題가 있다. 그 것은 雞林類事에서 바로 上項의 「刀子曰割」의 「割」이 「갈」의 表記라면 바로 下項의 「割子蓋」의 「割」을 「ㅈ」로 읽을 수 있겠

1)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서울: 東都書籍, 1945), PP. 22~25.

2) 河野六郎: 上揭書, PP. 21~141 Passim

3) 南廣祐: 「國語學論文集」, (서울: 一宇社, 1962), P. 127.

4) 方鍾鉉: 「雞林類事研究」, ([東方學志] 第二輯, 1954), P. 195.

5)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民衆書館, 1974), P. 95.

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對해서 南廣祐氏는 「ㅈ」와 「ㄷ」와의 關係에 對하여는 「ㄷ」音價 自体에 對하여 通時論的 立場에서 「ㅈ」音에 훨씬 가까운 位置에서 發音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李朝初期 文獻에서조차 「ㄷ」와 「ㅈ」의 混亂의 例를 찾을 수 있다는 그 事例를 들고 「ㄷ」와 「ㅈ」간의 母音 問題는 큰 問題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다라 하였다.⁶⁾ 또 「ㄷ」音이 15世紀의 訓民正音初期부터 이미 「ㅈ」母音과 混同되었음은 다음 李朝初期 文獻의 記錄을 通하여서도 알 수가 있다.

「초리다」와 「차리다」(析)

내 소이에 나 초림 몬하야 간대로 돌다니<月釋, 十, 25>

네 차려 드르라 내 큰하야 널오리라 <釋譜, 十三, 46>

「न्ह호다」와 「난호다」(分)

支는 न्ह홀씨라<月釋, 二, 37>

品은 난호아 저여곰 닐씨라<釋譜, 十三, 27>

以上 語例에서 볼때 「ㄷ」音의 消失은 15世紀의 正音初期에 이미 實現되어 ㄹ)의 變化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2世紀初의 雞林類事에서도 「ㄷ」 「ㅈ」母音의 混同을 엿볼 수 있으니,

「土曰 轄希」

「馬曰 末」

「鞍曰 末鞍」

等の 語辭들은 各各 「홀히」 「물」 「물안」으로 읽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들 「홀, 물」等を 正確히 記錄할 漢字가 없어 「할, 말」로 읽을 「轄, 末」字로 表記하였으니 「割子蓋」의 「割」字도 「マ」에 該當하는 正確한 漢字音이 없어, 그 近似音인 「割」字로 代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割」字의 終聲의 讀法問題다. 即 「剪刀曰 割子蓋」는 바로 「刀曰 割」의 次項에 있는 것인 바 前項에서는 「갈」로 읽고 後項에서는 「マ」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問題다.

雞林類事의 ㄹ)音에 對한 表記를 보면 大体로 ㄹ)音을 그대로 發音하는 境遇와, ㄹ)音을 省略하여 發音하는 境遇가 있으니,

途字(二), 酎字(酒), 酎字麻蛇(飲酒), 酎字打里 (燒酒), 酎字速(醉), 雌字(秤), 枯字(匱), 孛字(佛), 孛字南木(柴), 孛字(火)

의 孛은 ㄹ)로 發音하고

孛字(風), 孛字(扇)

의 孛은 ㄹ)을 省略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刀子曰割」은 「갈」로 읽되 「剪刀曰割

6) 南廣祐: 前掲書, P. 125.

子蓋의 「割」은 「マ」로 읽음도 別로 無理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割子蓋」의 「子」字를 「스」로 읽을 수 있느냐의 問題다. 雞林類事에 있어서의 「子」字의 使用例를 찾아 보면,

松曰 鉢子南, 林擒曰 悶子計, 叔伯母皆曰 Y子彌, 姨始亦曰 Y子彌, 腰帶亦曰 謁子帶,

女子蓋頭曰 子母蓋, 夾袋曰 南子木蓋, 合曰 合子, 斧曰 烏子蓋, 榜曰 栢子,

와 같이 「子」字는 語中の 入聲으로 借用되거나, 또는 「즈·즈」音으로 借用되고 있을 것이다. 雞林類事에서는 한 語辭가 두 音節 以上인 경우에 있어서 音節末音이 入聲일 때 先行字에서는 初, 中聲만 따고 入聲은 後續字의 初聲만을 따서 쓰는 경우가 많다. 南廣祐氏는

「우리는 오늘날 雞林類事의 著作年代인 1103~1104年代의 「子」字의 漢字音(宋나라나 高麗)을 알 수 없으나 以上 資料로 보아서는 「子」字가 宋, 高麗의 漢字音으로 「즈즈」程度의 것인 것을 「스, 스」音과의 相似에서 異邦人으로서의 헛디딤도 있어

「마스개, 마스개」의 表記를 語源의인 考慮도 곁들여 「割子蓋」로 하염직도 하다.」⁷⁾

라고 말한데 對해서 全的으로 同調하는 바이며, 또한 「子」字의 中國 漢音은 「스」이며, 또 日本 漢字音에서는 「시」로 發音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子」字를 「스」로 解讀함도 별 無理는 없다고 생각된다.

Ⅲ 「마스개의」成語 經緯와 變遷

以上 雞林類事의 「割子蓋」를 「마스개」로 解讀하여 보았거니와, 다음으로 「마스개」에 對한 그 成語 經緯 및 그 語源에 對하여 拙見을 들어 보기로 한다.

「마스개」는 「마스+개」로 分析하여 볼 수 있으나 「마스」는 即 「切, 斷」의 뜻을 가진 「마스다」의 語幹으로 보며, 「개」는 名詞化接尾辭로 볼 것이다.

「마스다」란 語彙의 文獻上 用例를 찾아 보면, 그리 많지는 않으나 李朝初期 文獻에 다음과 같은 語例를 찾아 볼 수 있다.

牛頭檀檀香木을 마아오라 <月釋, 10: 13>

羅漢돌허 彈指호 시에 바르래 香木 마아 죽자히 도라오나놀 (月釋10: 13)

種種香木을 마아오라 <月釋10: 13>

療마스실가 三城大王 <時用樂譜, 20>

와 같으니 위 語例의 「마아, 마스」는 그 原形 「아다」의 活用形으로 「 끊다」(切, 斷)의 뜻이 分明하다.

7) 南廣祐: 前掲書, P. 126.

그런데 筆者는 앞에서 「마스개」(割子蓋)의 「마스」를 「마스다」(切, 斷)의 語幹으로 보았거니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獻上에서는 그 語幹이 「ㄷ」'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對해서 本島方言과 關聯해서 그 關係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前掲한 바와 같이 文獻上으로도 그 用例가 드물고, 또 現在 本土 各方言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切, 斷」의 뜻을 가진 「ㄷ다」(ㄷ다)의 語辭가 本島方言에서는 널리 分布되고 있다. 本島方言에서 「ㄷ다, 마스다」(切斷)의 語形은 共時態로서 並存하고 있으니, 여기 그 活用을 들어본다.

ㄷ다, 마스다, ㄷ고, 마스고, ㄷ지, 마스지, 마스니, 마스면, 마스라, 마사서, 와 같이 實現되는데 그 語幹은 「ㄷ, 마스」의 兩形으로 實現되지만은 本來의 古形은 二音節인 「마스」形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標準語 系統에서는 그 語幹末음이 子音인데 對해서 本島方言에서는 語幹末음에 「으」母音이 더 添入된 母音形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그 特色인데, 이와 같은 語例를 本島方言에서 찾아 標準語와 對比시켜 들어 보면

(標準語) (濟州島方言)

꺾다 (削) 각그다
 같다 (如) 마트다
 낫다 (癒) 나스다
 높다 (高) 노프다
 닦다 (磨) 다끄다
 묶다 (束) 무끄다
 볶다 (熬) 보끄다
 발다 (吐) 바끄다
 짓다 (造) 지스다
 짧다 (短) 조르다
 엮다 (覆) 어프다

(標準語) (濟州島方言)

꺾다 (折) 겨그다
 깊다 (深) 지프다
 넓다 (廣) 널르다
 닦다 (鈞) 나끄다
 맡다 (任) 마트다
 벗다 (脫) 버스다
 심다 (植) 싱그다
 섞다 (混) 서끄다
 짓다 (吹) 죽그다
 얕다 (淺) 야프다
 잇다 (連) 이스다

等과 같이 標準語形으로는 單音節이나 本島方言形으로는 二音節로서 그 語幹末음이 母音 「으」形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本島方言의 이와 같은 語形이 現代 標準語形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 것인지 그 關係 糾明이 必要하다. 이에 對해서 言語地理學은 各語形의 分布狀態에서 主로 周邊에 分布狀態를 보여 주는 語形을 中央에 分布狀態를 보여 주는 語形보다는 古形으로 規定짓고 있는 것이니, 本島方言에 있어서의 分布狀態를 言語의 底層으로 假定을 세우고, 규명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면 本島方言에서의 以上과 같은 語形은 國語史的으로 볼 때 어떠한 位置를 차지하는

것인지? 여기에 對하여서는 通時的 考察 卽 文獻的 事實과 結付시켜 考察해 봄으로써 그 關係가 糾明될 것이다. 15世紀 文獻語 「몬하다」와 「만하다」 등의 語辭는 前揭한 本島方言形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文獻에서 그 語例를 들어 본다.

「몬하다」의 例

- 東海人 마이 저재 몬하니<龍歌, 6장>
 始終이 이 마투실씨<龍歌, 79장>
 그 짜리 우메서 드라음 몬하야<月印, 廿一, 29>
 大鬼王이 이리 이 몬하야<月釋, 二一, 129>
 너도 또 이 몬하다<능誌, 二, 23>
 心地를 아디 몬하야 이몬하도소니<永嘉, 下, 106>
 兵事1 불 몬하요를 齋戒하야<杜誌, 五, 19>
 그레 스막촌 馘비치 몬하야<蒙山, 43>

「만하다」의 例

- 讒口 | 만하야<龍歌, 123章>
 세 하누를 煩惱 | 만하고<釋譜, 六, 36>
 時節이 모던 이리 만하야<月釋, 一, 16>
 그 사르미 子息이 만하야<月釋, 一七, 9>

前記 兩語는 以上 例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語幹은 各各 「몬하」(마투)와 「만하」 일 것이니 이 語形은 앞에 列舉한 本島方言形 「마투, 만하」와 全然 同軌의 語形이라고 생각되니, 이는 言語地理學的으로 보나 文獻的 事實로 보아서 前揭한 本島方言形이 15世紀 또는 그 以前 時代의 古形임을 짐작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標準語에 있어서의 「갈」 「담」과 같은 語形은 아마 「마투」와 「만하」에 있던 끝 母音이 弱化 脫落되어서 이루어진 語形일 것이다.

以上은 주로 用言의 境遇에 있어서의 事實을 들어 보았으나, 體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音韻 變遷의 事實을 찾아 볼 수가 있다.

新羅時代의 王號인 「尼叱今」이 「尼斯今」 또는 「尼師今」으로 表記된 事實도 하나의 傍證이 된다고 생각된다. 卽 「尼叱今」은 「닛금」으로 읽을 것이며 또 「尼斯今, 尼師今」은 「니스금」으로 읽을 것인즉 여기서, 「닛」과 「니스」는 서로 어떠한 關係에 있는 말인가? 三國遺事에 「尼叱今或作尼斯今」이라 記錄되어 있으니, 이 두 말은 다 같이 王號를 이르는 말이므로, 그 語音에 있어서는 上揭한 바와 같이 差異가 있는 말이라 생각된다. 즉 「尼斯, 尼師」는 두 音節인 「니스」의 音借요 「尼叱」은 「닛」의 音借일 것이다. 「닛, 니스」는 같은 뜻으로 「닛다, 니스다」卽 「繼, 嗣」를 뜻하는 말이다. 前述한 音韻變遷 理論에서 볼때

即 二音節語「니스」는 語末 母音의 弱化 脫落으로 閉音節「닛」으로 變하였으리라고 생각 되니, 新羅時代 王號로 「닛금, 니스금」兩形態가 나타남은 「니스」形에서 「닛」形으로 轉化 되어 가는 過渡的 並存期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이 말은 니스)닛)잇(繼)과 같은 變遷 過程을 거쳤다고 할 것이다. 本島方言에는 아직도 「이스」(繼)形이 實現되고 있으니, 여기서도 本島方言이 言語의 底層을 維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文獻을 通해서 볼때 드르→들(野), 거우르→거울(鏡), 벼르→별(崖), 더리→털(毛)로 音韻이 變해 온 語例를 찾아 볼 수 있으니, 이들 語彙들도 모두 語末 母音의 脫落에 依한 變形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對해서 本島方言에서는 아직도, 「드르」(野), 「거럭」(毛) 등의 語形이 維持되고 있으며, 그 外 「꽃」(花)을 「고장」이라 하고 「낫」(鎌)을 「나대」(나무 같은 것을 자르는데 쓰는 낫 비슷한 연장)라고 함도 本島方言이 語末母音이 脫落되기 以前의 古形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以上과 같은 音韻變遷 現象에 對해서 李基文氏는 “母音의 比較에서 드러나는 興味 있는 事實은 國語의 語末 母音의 脫落이다. 그리하여, 起源的인 二音節 單語가 一音節로 되고, 三音節 單語가 二音節로 되었다.”⁸⁾ 라고 하였으며,

金亨奎氏는 이와 같은 우리 國語에 있어서의 語末母音의 脫落 現象에 對해서 우리말과 同系統의 言語(日本語, 滿洲語)들과 語彙를 서로 對應시켜 보고, 그 對應의 關係에 對해서는 Jespersen의 語末母音이 弱化 脫落되어가는 傾向이 있음은 言語 一般에 나타나는 現象이라는 說을 引用 原語에선 語末에 母音이 있었던 것이 後에 그 母音이 弱化 脫落되었다고 主張하고, 國語도 亦是 그와 같은 길을 걷고 變해 왔을 것으로 생각 되며, 더구나 日本語, 滿洲語와 對照해 볼 때, 그 傾向을 더욱 分明히 把握할 수 있음을 主張하였다.⁹⁾

玄平孝氏는 오늘날 標準語에서 一音節語幹인 「쉬-」, 「짜-」, 「닿-」들의 語形에 對해서 本島方言에 나타나는 「가끄-」, 「서끄-」, 「만흐-」들과 같은 二音節 語幹形은 文獻的 事實과 結付시켜서 考察하여 볼때 15, 6世紀의 古形이 아직도 殘存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

또 日本 學者 服部四郎氏는

Tungus語의 一派인 滿洲語에선 音節末의 子音의 消失의 結果 閉音節이 생겼을 것이요, 日本語의 鹿兒島 方言과 蒙古語에선 第二音節의 母音의 消失의 結果 閉音節이 생겼다. Altai 諸言語와 朝鮮語에 있어서도 過去에 같은 音韻變化가 일어났을 蓋然性이

8) 李基文: 「國語史概說」, (서울: 民衆書館, 1974), P. 17.

9) 金亨奎: 「國語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4), PP. 82~84.

10)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層位學的 考察」, (藏菴 池憲英先生 華甲紀念論叢, 1971)

PP. 838~40Passim.

있다.¹¹⁾

고 말하였다.

以上 語末母音의 脫落現象에 對해서는 文獻的 事實을 通하여서 考察을 하여 보거나, 또는 同系統의 言語들과의 比較考察을 通하여서 볼 때, 以上 여러 學者들이 主張한 바와 같이 原語에선 語末에 母音이 維持되어 있던 語形이 次々 語末母音이 弱화 脫落되어 閉音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前揭한 本島方言의 語例들의 語形은 아직 語末母音이 脫落되기 以前 狀態의 古層이 아직도 維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니, 標準語系統語에서는 일찍이 語末母音의 脫落現象을 일으켜 오늘날과 같은 語末이 子音으로 끝나는 閉音節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切, 斷」의 뜻을 가진 李朝初期 文獻語 「ㄹ-」도 그 原語는 「마스다」일 것이니 「마스다」의 語末 母音「-」가 脫落되어 閉音節「ㄹ」으로 된 것이 15世紀 文獻語의 形態일 것이며, 따라서 「마스다」形은 적어도 15世紀 以前의 古形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마스개」의 「개」는 道具를 나타내는 後接辭일 것이니, 「벼개, 마개, 도리개, 덧개, 집개, 쭈시개, 노리개, 지개」 등과 같이 動詞에 後接해서 動名詞로 되기도 하며, 名詞에 後接해서 도로 名詞를 指稱하는 것도 있다. 오늘날 「개」接尾辭는 特히 南道方言에 많이 남아 있어 「가시개(鉢), 나성개(병이), 달롱개(달래)」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우리말에서 이 「-ge」後接辭는 現在 뿐만 아니라, 高麗, 新羅時代에도 人名, 物名에 「-ge」를 後接시킨 흔적이 많이 散見된다. 卽 雞林類事의 斧曰 鳥子蓋, 剪刀曰 割子蓋, 夾裳曰 南子木蓋, 女子蓋頭曰 子母蓋, 등의 「蓋」는 이 「-ge」일 것이니 우리말에는 일찍이 「개」接尾辭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本島方言에서 이 「개」接尾辭를 붙인 特異한 말로서는 「복송개」가 있으니 이 말은 그 構成이 「복송+개」일 것이며 陸地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말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雞林類事의 「割子蓋」를 「마스개」로 解讀을 試圖하여 보았으며, 또 그 成語 經緯에 對해서 管見을 들어 보았다. 다음에는 이 「마스개」(割子蓋)의 變遷에 對하여 생각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變化 過程을 거쳐 오늘날 標準語 系統의 (가위)라는 말이 形成 되었으리라고 믿어 진다.

마스개(割子蓋)→마스애→마새→마애→마웨→마위→가위

12世紀 初頭의 文獻語(雞林類事) 「마스개」(割子蓋) 語形은 中間子音 [g] 이 脫落되어 「마스애」로 되고 여기서 다시 母音이 脫落되어서 「마새」形이 되었을 것이다. 本島方言에는 「마새」形이 全島에 分布되어 있어 널리 使用되고 있으니 本島方言 「마새」 語形은 「마스개」로부터 轉化된 것이며 이 것은 語間 [g] 音의 消失에 依한 것이라 할 것이다. 金亨奎氏

11) 服部四郎: 「日本語の系統」, (東京: 1959), P. 13

는 “國語에 있어 母音間 [g] 音 弱化 脫落 現象은 Altai語族 中에서도 가장 분명히 나타나 高麗時代に 中部語를 中心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따라 「개」 接尾辭도 脫落되어 버린 語彙가 많게 되었다”¹²⁾ 라고 말하였거니와 母音이나 開音 사이에 介在하는 子音이 弱化되어 가는 것이 言語의 一般的인 傾向임은 여러 學者들이 主張하고 있는 바다.

本島方言에서 語間 [g] 音의 弱化 脫落現象은 일찌기 이루어진 듯 하며, 慶尙道 또는 全羅道方言에서 얻어 볼 수 있는 [g] 音 保存의 語形을 本島에서는 찾아 보기가 어렵다. 南道方言에 많이 있는 「개」 接尾辭도 本島에선 대개 脫落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本島方言에는 아직도 語間 [g] 音이 保存되어 있는 말을 散見할 수 있으니,

kgggi(구멍), mengwl-da(만들다), singw-da(심는다), 등의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音이 아직도 保存되어 있는 形態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kgggi」와 같은 例는 咸鏡道에만 保存된 形態로, 이것이 濟州島에 나타난다는 것은 本島方言에 [g] 音의 保存이 強하게 나타난다는 主張을 뒷받침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一方 過去에 語間 [g] 音이 保存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는 많은 語例가 本島方言에서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없다. 例를 들면, 널리 [g] 音의 자취를 保存하고 있는 mnglu(머루), molge(모래)가 本島方言에선 15世紀의 古語形인 mallwi, melli, 그리고 molle, mosal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本島方言에서는 [g] 音의 保存은 매우 弱해서 大部分이 脫落되었고 그 一部가 남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ㅁㅅ」形은 15世紀 文獻에 나타나는 語形이니, 이 것은 「ㅁㅅ」形으로부터 變化되어 나왔음은 容易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ㅁㅅ대 「ㅁㅅ」로부터 「ㅁㅅ」로의 轉化는 語間의 [s] 音의 弱化 脫落現象에 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李朝初期 文獻에는 [s] 音이 大概는 이미 脫落한 後의 記錄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s] 音의 維持形들은 當然 15世紀 文獻語 「ㅁㅅ」形 以前의 古形임이 分명한 것이다.

本島方言에 있어서의 語間 [s] 音의 弱化 脫落現象을 보면, 李朝前期에 [Δ]로 表記되던 ㅁㅅ의 大多數가 아직도 [ㅁㅅ] 音을 保存하고 있으니 그 語例를 들어보면,

秋-ㅁㅅ, ㅁㅅ, 冬-저ㅅ, 저ㅅ, 村落-ㅁㅅ, ㅁㅅ, 親-어ㅅ, 弟-아ㅅ,
心-ㅁㅅ, ㅁㅅ, 齋-난ㅅ, 欵-ㅁㅅ, 야(強調詞)-ㅅ,

등의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秋, 冬, 村落 같은 말도 「s」 音과 더불어 그 것이 脫落한 「ㅁㅅ, 저ㅅ, ㅁㅅ」 같은 語形이 並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濟州島에서 또 「s」 音은 脫落되어 가는 傾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島方言은 「s」 音의 維持라는 點에 있어서는 아직도 다른 어느 地方보다 가장 強하다고 생각되니, 그 證據로는 「ㅁㅅ」(心)을 들 수 있다. 李朝前期 文獻에 「ㅁㅅ」으로 記錄되어 있는 語彙가 陸地部

12) 金亨奎: 說書, P. 47.

에선 [s] ㅍ이 保存된 方言을 全然 찾아 볼 수 없으나, 濟州島에서는 아직도 [s]ㅍ을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스개」(割子蓋)의 語源에 對하여 本島方言과 關聯하여 推理의 一端을 들어 본다.

「마스개」의 「마스-」는 本島方言에서 「剪, 切, 斷」의 뜻을 가진 語辭로서, 지금은 「마스-」形으로 實現되며 널리 使用되고 있는 말이다.

(濟州島方言)	(標準語)
질게 마스라	길게 끊으라
마스지 말라	끊지 말라
마스난 좋다	끊으니 좋다
마스멍 하라	끊으면서 하라
이거 마사 보라	이것 끊어 보라
머리를 마스라	머리를 깎으라

等の 語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라는 語形은 前述한 바 「마스다」의 語幹이며, 「剪, 斷, 切」의 뜻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 共時態로서는 「마스-」이나 李朝初期 乃至 高麗時代に 미처서는 母音調和에 依해서 當然 「마스-」形이 있을 것이다.

이 「마스-」라는 말에서 派生되었거나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말들로서는, 마술(가을), 마술하다(秋收하다), 보리마술(麥收), 마술왁(秋收를 다 마쳐 버린 밭), 마술컷(秋收), 마슴(가음)

等이라고 생각되며, 15世紀 文獻語 「마술」(秋)이란 말도 「剪, 切, 斷」의 뜻을 가진 「마스」에서 派生된 말일 것이니, 農作物을 마스(剪) 드리는 일 即 收穫의 뜻으로 마술(마스+르)이라고 불렀을 것인즉 지금도 「麥收」를 「보리마술」이라고 하는 데서 짐작 할 수 있다. 「마술」即 農作物의 收穫은 四季節中 主로 秋期에 많이 行하여지므로 이 「마술」은 「秋」를 稱하는 말로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本島方言에서 오늘날에도 「마술컷하다」(秋收하다), 「마술왁」(秋收를 다 마친 밭)의 말 들이 있으니 이 「마술」은 「마스드리는 일」即 收穫의 뜻이며, 나아가서는 農作物을 베어 거두어 드리는 收穫의 季節인 「秋」의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Ⅳ 比較的 考察

지금까지 雞林類亭의 記錄인 「割子蓋」를 「마스개」로 解讀을 試圖하여 보고 그 歷史的 變遷에 對해서 管見을 들어 보았거니와, 여기에 對해서 國語와 同系統에 屬하는 Altai系統

語 그 中에서도 特히 우리말과 隣接하여 있는 滿洲語와의 比較的 考察을 通해서 兩語間的 類似點 或은 對應點을 發見하여 내고, 나아가서는 共通祖語의 再構成에까지 遡及해서 推定 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滿洲語에서는 「欵」을 「hasaha」라고 하는데 이 말을 雞林類事의 「割子蓋」即 「마스개」(Kbsbge)와 比較하여 볼 때, 여기서 母音에 對하여는 큰 問題될 것이 없으며 且置하고, 子音만을 가지고 볼 때 滿洲語의 [h]音과 우리말의 [k]音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는 것일까? 이 에 對해서 河野六郎氏는 滿洲語 [h]音과 우리말의 [k]音과는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을 다음과 같은 語例를 들고 主張하였으니 여기 그 語例中 一部를 引用하여 들어 본다.

〈滿洲語〉	〈韓國語〉
huju 「馬槽」	kus-(kusi, kusu, kuji) 「同」
halba 「肩胛骨」	kalbi 「肋骨」
haci-n 「種類」	kadzi 「同」
hasi 「茄子」	kadzi 「同」
helme-n 「影」	kwrwmci(그르메) 「同」
hula-n 「煙突」	kul-tuk, kul-muk 「同」
halu 「細粉」	kal 「粉」

〈朝鮮方言學試攷, pp. 144~145〉

以上 語例에서 볼 때 滿洲語의 [h]音과 우리말의 [k]音과는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이 分明하다.

또 滿洲語에서 「 끊다」(斷. 絶)라는 말에 「hasa-la-mbi」라는 말이 있는데, 河野六郎氏는 이 「hasa-lambi」語形에 對해서 “-la-는 後接辭이므로 (cf. aba 「狩」:aba-la-mbi 「수렵을 한다」) hasa-가 語根임을 알 수가 있다”¹³⁾고 말하였다. 이 滿洲語 「hasa」는 本島方言形인 「kbsb」(마스)와 比較하여 보면 滿洲語 [h]音과 우리말의 [k]音과는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을 생각할 때 「hasa」와 本島方言 「kbsb」(마스)는 音韻上으로도나 語意上으로도 一致함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子音의 對應關係에서 볼 때, 滿洲語의 「hasaha」는 「hasa+ha」即 끊다 (切. 斷)의 語幹 「hasa」에 接尾辭 「ha」가 後接하여 成語된 것이니, 이 것은 前述한 雞林類事의 割子蓋의 解讀인 「마스개」(kbsbge)의 語形과 全然 一致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滿洲語의 「hasaha」와 우리말 「kbsbge」(마스개)는 다 같은 共通祖語에서부터 分化되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또 日本語에서는 「欵」을 「hasami」라고 하는데, 이말은 「hasa+mi」로 分析될 것이다.

13)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서울: 東都書籍, 1945), P. 146.

日本語에서 剪.切.斷의 뜻으로 「hasamu」라는 말이 있는데, 「hasami」는 이 「hasa」에 「mi」即 名詞化 接尾辭가 後接하여 hasami라는 말이 成語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韓國, 滿洲, 日本의 俗語形을 對比하여 보던

〈韓國語〉	〈滿洲語〉	〈日本語〉
kbsb-ge(마스개)	hasa-ha	hasa-mi

와 같으니 여기서 各各 接尾辭를 除去해서 볼 때, 滿洲語와 日本語는 다 같이 「hasa」形으로 完全 同一形이 되며, 우리말과 比較하여 볼 때는 母音은 큰 差異가 없겠으나, 語頭子音에 있어서는 「k:h」의 差異를 볼 수 있다. 이에 對해서는 滿洲語의 「h」音과 우리말 「k」音과는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은 前述한 바이거니와 이에 對해서 李澤氏는 喉音의 後舌音化를 主張하여

干(간)의 韓國音도 現代音으로는 亦是「간」이나, 그러나 韓國의 古代音은 다음에 論證한 바와 같이 「한」이니, 이 것은 곧 中國의 古音이다. 그러므로 中國音으로도 「干」의 前次音이 「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新羅의 官職名에서 舒發翰=伊罰干=伊伐浚, 距干=距判으로 되어 있으니 이 것으로 舒發翰, 伊罰干, 伊伐浚의 音이 서로 같고 距干, 距判의 音이 서로 같은 同名異寫임을 알 수 있다.¹⁴⁾

고 하여 「干」의 現代音은 「간」이나 新羅時代의 音은 「한」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音韻法則은 日本語의 境遇에도 適用됨을 알 수 있으니, 現代日語의 [nokokiri] (鋸)가 和名類聚抄에는 能保木利 [nohokiri] 로 되어 있고, 平安朝의 [hukumeri] (フクマリ=含有)가 萬葉集에 [huhumeri] 로 되어 있는 등을 볼 때, 日本語에 있어서도 [h]音에서부터 [k]音으로 次次 轉化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본다면 缺을 이르는 우리말의 古代形을 「hosb-hai」로 推定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그 後에 [h]音이 [k]音으로 轉化되어 「마스개」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同系統語에 對한 比較的考察을 通해서 볼 때 이 「缺」語에 對한 文獻語 以前의 言語의 古層도 어느 程度 再構가 可能함을 알 수 있겠다. 以上の 比較的考察에서 볼 때 이 「缺」語에 關한 限 韓國語, 滿洲語, 日本語는 共히 다 같은 祖語에서부터 出發하여 分派되어 나왔다고 推則되며, 高麗時代 雜林類事의 割子蓋(마스개)는 이들 [h]音을 維持하고 있는 滿洲語와 日本語의 「hasa」形에 比해서 훨씬 後次語가 아닌가 생각된다.

14) 李澤: 「國語學論攷」, (서울: 正音社, 1958), P. 155.

V 結 語

雞林類事に 記錄된 「割子蓋」의 解讀에 對하여는, 일찌기 日人 學者 河野六郎氏를 爲始해서 先輩學者들의 많은 研究가 있어온 터라,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이 本稿에서는 特段의 새 發見은 아니나, 다만 「割子蓋」의 解讀 問題를 中心으로하여 特히 本島方言과 關聯해서 「鈇」語에 關한 管見을 들어 본 데 不過하다.

「鈇」語에 對한 最古 文獻의 記錄인 雞林類事の 「割子蓋」의 解讀 問題에 있어서는 漢字音, 文獻資料, 方言 等의 세가지 方面의 研究가 眞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特히 濟州島의 方言的 事實과 關聯해서 考察하여 볼 때, 「割子蓋」는 「마스개」의 表記가 아닌가 한다. 本島方言에서는 끊다(剪, 斷, 切)의 뜻으로 「마스-」形이 共時態로서 實現되니 이 것은 本土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言語의 底層이라고 생각되며, 15世紀 乃至 그 以前 時代는 母音調和에 따라 그 語形이 「마스-」形이었음은 容易하게 推定할 수가 있다. 「割子蓋」는 이 「마스-」에 「개」(道具를 나타내는 接尾辭)가 結合되어 이루어진 語詞일 것이다. 15世紀 文獻語 「ㄹ-」도 그 原形은 「마스-」일 것이니 「마스-」의 語末母音 「·」가 脫落되어 閉音節 「ㄹ-」으로 된 것이 15世紀 文獻語의 形態일 것이며, 따라서 15世紀 以前 即 雞林類事を 編纂하던 12世紀頃에 있어서는 二音節인 「마스-」形이었으리라고 推定되니, 오늘날 陸地部 諸方言에서는 單音節이나 本島方言에서는 二音節로서 그 語幹末音이 母音 「으」形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即 우리 國語에 있어서 語末母音의 弱化 脫落現 象이니, 우리말 뿐만 아니라 言語一般에 나타나는 現象임을 學者들은 指摘하고 있다. 그런데 本島方言에서는 아직도 語末母音이 脫落되지 않은 古形을 保存하고 있음이 特色이다.

이 「마스개」(割子蓋)는 우리말과 同系統에 屬한다고 생각되는 言語들과의 比較的考察을 통해서 볼 때 더욱 明瞭한 것이니, 即 滿洲語에서는 「가위」를 [hasaha] 라고 하는데 [-ha]는 接尾辭이므로 이 [-ha]를 除去하여버리면 그 語根은 [hasa]이니 前述한 바 우리말의 [k] ㅍ과 滿洲語의 [h] ㅍ과는 서로 對應關係에 있음과, 또 오늘날 우리말에서 [k] ㅍ이 [h] ㅍ에서 轉化되어온 後次音임을 勘案할 때 이 「鈇」語에 있어서는 韓, 滿 兩語는 같이 共通祖語에서부터 出發하여 分岐되어 나왔다고 推定되며 日本語도 또한 이와 同系라고 推定된다.

「鈇」語에 있어서 雞林類事 以後의 變遷은 다음과 같이 많을까 생각된다.

마스개(割子蓋) > 마스애 > 스새 > 마애 > 마애 > 가위 > 가위

以上의 語形中에서 本島方言形은 「마새」이니 이 語形은 語間 [g] ㅍ의 弱化 脫落에 依해서 이루어진 語形일 것이다. 本島方言은 地理的 條件等으로 볼 때 陸地部에서 일어난 言語

變遷의 影響을 받지 않고 古語의 形態를 保存하는 言語로 믿어지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니, 여기 母音間 또는 開音 사이에서의 [g] 音의 弱化脫落이란 音韻變化 現象에서 볼때, [g] 音을 保存하는 慶尙道, 咸鏡道 方言에 比하면 本島方言은 오히려 新形態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송정식 : 우리말의 語源考. 서울, 박애출판사, 1975
 金亨奎 : 韓國方言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74
 金亨奎 : 國語學概論 (增補版). 서울, 一潮閣, 1974
 李基文 : 國語史概說. 서울, 民衆書館, 1974
 玄平孝 : 濟州島方言의 層位學的 考察. (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서울, 1971
 鄭際海 : 表記法의 合理化 (말글, 3호). 서울, 言文研究會出版部, 1970
 金亨奎 : 國語史研究 (增補版). 서울, 一潮閣, 1964
 玄平孝 : 濟州島方言研究 (第1輯資料篇). 서울, 精研社, 1962
 金喆憲 : 雜林類事研究 (국어 국문학, 제25호). 서울, 1962
 兩廣祐 : 國語學論文集. 서울, 一字社, 1962
 李崇寧 : 國語造語論攷. 서울, 乙酉文化史, 1961
 李崇寧 : 國語學論攷. 서울, 東洋出版社, 1960
 崔鶴根 : 國語方言學序論. 서울, 精研社, 1959
 李 鐸 : 國語學論攷. 서울, 正音社, 1958
 兩廣祐 : 古語辭典. 서울, 東西出版社, 1958
 李基文 : 雜林類事의 一考察 (一 二字照昇先生頌壽紀念論叢). 서울, 一潮閣, 1957
 梁柱東 : 古歌研究. 서울, 博文出版社, 1954
 方鍾鉉 : 雜林類事研究 (東方學志, 第二輯). 서울, 1954
 服部四郎 : 日本語の系統. 東京, 1959
 河野六郎 : 朝鮮方言學試攷. 서울, 東都書齋, 1945
 小倉進平 : 朝鮮方言の研究. (上, 下) 東京, 岩波書店, 1944

—Summary—

A Study of the 「Kawi」 Phrases

—In Relation to the Cheju-Do Dialect—

by Kim Hong-sik

The oldest mention of the word stem “Kawi” was made in the book “Kyerim Yusa” which was written in the early part of the 12th century. In this paper, the writer attempts to offer some suggestions as to how to interpret the word stem in relation to the Cheju-Do Dialect.

The perfect interpretation of the stem and its phrases will have to wait for the explication of the then pronunci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the collection of other literature to back these pronunciation and the study of the contemporary dialects.

Japanese scholars including Rokuro Kono, however, already presented their papers on this subject and the writer, too, attempts to interpret the stem and its phrases. The writer has come to believe that the word stem “Kawi” is the same stem found in [kɔsbɔɛ] of the Cheju-Do Dialects.

In the Cheju-Do Dialects, [kɔsw-] is still used to convey the meaning of “cutting” and “nipping”. This old form disappeared from the mainland dialects long ago but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it once existed as a linguistic stem and that it underwent a phonetic change to turn into [kɔsb-] because of “vowel harmony” around the 15th century.

This transformed stem [kɔsb-] survived in this geographically isolated island and attracted [ɔɛ] as a suffix.

Since Korean and Manchu belong to the same linguistic family, the two languages, it is supposed, had the same parent and common stems for some ages before they diverged into Korean, Manchu and Japanese.